

>> 6,150명 프리허그에 도전한 배우 안석환

오늘은 우리끼리 내일은 남북함께 ‘포~옹’

북녘나무온실(양묘장)건립을 위한 ‘배우 안석환 프리허그’가 지난 5월 14일 부산대학교에서 진행됐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고 남북정상이 포옹하던 당시의 감동을 살리자는 취지의 프리허그는 배우 안석환씨가 한 명을 포옹할 때마다 나무 10그루(1만원 상당)를 북측에 지원하는 행사로 북녘나무온실건립기금 마련과 더불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여론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

올해 처음 기획된 프리허그 행사에는 30여명의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부산대학교생 6,0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안석환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젊은이들이 북측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이북에 양묘장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프리허그 행사는 오전 9시에 시작됐다. 하루만에 6,150명이라는 인원을 안아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행사는 성공적

이었다. 대학생들 외에 일반 시민도 많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내려 양팔을 벌리며 다가오기도 했고, 한 아주머니는 과일 주스를 건네주며 “힘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오후 6시가 채 되기 전에 목표를 달성하며 행사는 마무리 됐다. 프리허그에 자원봉사단으로 참가한 남준호(부산대 1) 학생은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무관심했었는데, 행사에 참여하면서 통일은 우리에게나 북측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행사후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상호 우리겨레하나되기부 산운동본부 기획부장은 “안석환씨가 지난번 평양항생제공장 건립 운동에 참가한 데에 이어 이번 행사를 주도하는 등 통일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안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주연 기자 juyeon95@naver.com
조은선 기자 psm5678@naver.com



북녘에 양묘장을 ... 왜?

평양시 삼석구역 일대에 조성 중인 양묘장은 오는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3년 후 양묘장에서는 매년 200만 그루의 나무가 생산되며, 이는 영도구 1/3정도의 땅을 숲으로 만들 수 있는 규모이다.

양묘장은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심어서 기르는 곳’이다.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는 배우 안석환의 프리허그 사업으로 이미 나무 6만 1,500그루를 지원했고,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1학교 300그루 북녘나무 가꾸기 사업’을 통해 북녘 양묘장에 통일 나무를 기증할 계획이다. 북녘에 씨앗이나 묘목을 심는 일에 왜 많은 남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걸까.

북측은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 자연재해를 막아줄 울창한 산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북측의 수해가 언제든 남측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북을 돕는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니다. 비록 아직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잘 살기 위해, 인간적 도리를 다 하기 위해 사람들은 북측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인지상정 아닐까?

김창윤 기자 nuri7kr123@naver.com
윤동석 기자 ehd20023@naver.com



▲ 평양시 삼석구역에서 양묘장 부지를 실시하고 있다.

나무의 숲에서

지난 8월부터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교총)와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는 북녘에 나무를 보내주는 사업에 동참할 초·중·고등학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를 ‘북녘나무가꿈이학교’로 명명키로 했다.

부산교총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통해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직 단체로 이번이 처음으로 북녘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북녘에 나무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며, 북녘에 나무를 보내는 일은 곧 통일 미래를 우리 손으로 가꾸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뜻깊은 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마음을 이어가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부산교총, 북녘나무지원 나서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는 나무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교육적 효과는 물론 환경의 중요성, 동포애를 통한 화해협력, 미래통일국가에 대한 생각들도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원규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사무차장은 “숲 가꾸기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세계적인 관심 사안으로 남북은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후손에게 물려줄 금수강산을 잘 가꾸는 일은 매

통일을 외치다

우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북으로 보낸 나무는 청소년들이 훗날 통일시대의 어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북녘나무가꿈이학교’에 동참하게 되면 통일에 대한 학생용 홍보물이 지원되며, 북녘 양묘장 준공식, 식수행사 등의 방북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많은 학교들이 참가하여 청소년들의 동포애가 북녘으로 잘 전달된다면, 아마도 내년쯤 남북 청소년 교류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김하정 기자 rhlehdkw@naver.com
이예주 기자 yejugreat@hanmail.net